



‘환경을 중시하고 사회와 공생한다’ 일본 코카콜라의 선진적인 자판기 운영사례

일본 코카콜라에서 운영하는 음료자판기는 무려 98만대에 이른다. 양도 양이지만 일본 코카콜라가 펼치는 첨단 자판기 운영사례를 보면 더 놀랄 수밖에 없다. ‘환경대응’이나 ‘사회와의 공생’에 있어 적극적인 대책들을 제시하며, 선진적으로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여겨보면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일본 코카콜라 홈페이지를 참조해 선진 자판기 운영사례를 정리해 봤다.

>>> 자동판매기의 진화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청량음료용 자동판매기는 대략 250만대이다. 이 가운데 약 98만대로 코카콜라사 제품을 제공해 매일 2,00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한다.

코카·콜라시스템은 1962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병 자동판매기를 도입해 고객에게 언제나

도 간편하게 손에 들어오는 맛있는 음료의 제공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코카콜라시스템의 자동판매기는 ‘더 맛있고, 즐겁게,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것’을 기치로 환경과의 대응이나 거리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사회와의 공생을 도모해 왔다.

차세대형 자동판매기 eco/E40

eco/E40는 'No.1의 환경 성능'과 '대접'을 컨셉으로 개발된 차세대형 자동판매기이다. 주요기능은 ▶ 효율적인 가온·냉각을 가능하게 하는 히트 펌프 시스템 ▶ 기밀성이나 단열성이 높은 진공 단열재 ▶ 큰 폭의 소비 전력을 삭감해 장기에 걸쳐 교환 불필요한 LED 조명 등의 기술을 조합하는 것으로 충전기계에 비해 약40%의 에너지 절약화를 실현했



다. 아울러 논후론가스 채용, LED 조명 이용에 의해서 형광등에 포함되어 있던 유해 물질(수은등)도 삭감했다. 게다가 「대접」 컨셉 아래 사용하기 쉽게 즐거운 자동판매기를 목표로 조작부와 투출구는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높이로 설계했다. 특히 투출구는 고객이 주저앉지 않아도 상품을 잡히도록 배려하여 종래기계보다 높게 했다. 또 제품의 사진 배경은 상품에 맞추어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 LED의 조명 패턴도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다. iD나 Edy 등의 전자화폐도 대응했다.

코카·콜라 시스템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설치 자동판매기의 논후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eco」브랜드의 전개, 「eco/E40」의 보급 촉진과 논후론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한층 더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eco/E40의 주요기능

- 히트 펌프 폐열 이용 시스템과 진공 단열재, LED 조명 채용에 의해, 약 40%의 에너지 절약화를 실현(충전 기계대비).
- 환경에 좋은 논후론 냉매의 사용
- 조작부와 토리데구를 중앙에 배치한 유니버설 디자인
- iD, Edy 등 여러 가지 전자화폐에 대응

- 2008년말 시점에서 전국에 1,000대 이상을 전개

자동판매기는 고객에게 있어서 친밀한 존재인 것과 동시에 야간에도 조명이 켜져 있어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도 눈에 띄기 쉽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로부터 자동판매기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에도 좋고, 편리한 자동판매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업계를 선도하며 항상 혁신을 계속해 온 코카·콜라시스템의 자동판매기는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며 정진하고 있다.

교토시영 지하철 구내전역에「eco/E40」설치



2008년 8월엔 교토 지하철 31역의 구내 모두에 「eco/E40」가 설치되었다. 즐거움이나 편리한 사용과 더불어 히트 펌프나 사람 감지 센서에 의한 상품 표시의 점등 등의 환경 성능을 갖추었다. 또 재해로 인한 정전시 송전이 멈추어도 예비 전원에 의해 약 48시간 가동 가능하고, 음료를 무료 제공해 지역에도 공헌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재해 대응형 자동판매기의 도입

「사회와의 공생」을 목표로 하는 코카·콜라시스템에서는 환경면이나 '대접'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재해 대응형 자동판매기도 그 하나. 이 자동판매기는 내장한 배터리에 의해 지진 등의 재난으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공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에는 재해시 제품 무료 제공을 실시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다. 재해시에는 수분 보급이 생존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코카·콜라시스템에서는 각 자치체와 협력하고 재해 대응



형 자동판매기의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주소 표시 스티커나 재해·지역 정보의 표시 AED 탑재 등 다양한 기능을 부가한 것도 있다. 자동판매기는 환경 배려 뿐만 아니라 그 설치 대수의 풍부함이나 24시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안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향후에도 코카·콜라시스템은 환경 배려와 사회공헌의 실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다.

자동판매기 오퍼레이션의 개선

자동판매기의 온라인 통신에 의해 상품 보충 등의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도입을 개시했다. 자동판매기의 재고 상황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파악해 출하시의 과잉 상품 적재나 단기간 재보충을 회피할 수 있어 배송차의 효율적인 운용에 의한 CO² 삭감을 할 수 있다. 또 재고 상황만이 아니고 자동판매기마다 전략상품이나 최다 판매 시간대를 온라인으로 파악하는 일도 가능하도록 해 설치 로케이션에 최적화한 상품 라인업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향후에도 CO² 삭감으로 연결되는 오퍼레이션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안전·안심인 마을 조성에 공헌하는 지역 공헌형 자판기 지방 자치체, 경찰서 등과의 제휴 아래, 친밀한 존재인 자동판매기나 루트 카를 활용한 안전·안심 마을 조성에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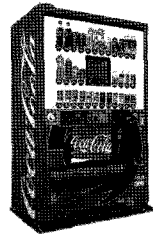
각지에서 자동판매기의 주소 표시 스티커 첨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지역 공헌형 자동판매기의 전광 게시기능을 사용해 경찰서로부터의 방법 정보를 발신하는 대처를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부유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해 모금형 자동판매기의 설치도 진행하고 있다.

루트 카를 활용한 방법 대책도 행해지고 있다. 루트 카로 주행 중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통보 혹은 보호를 실시해 안전 확보에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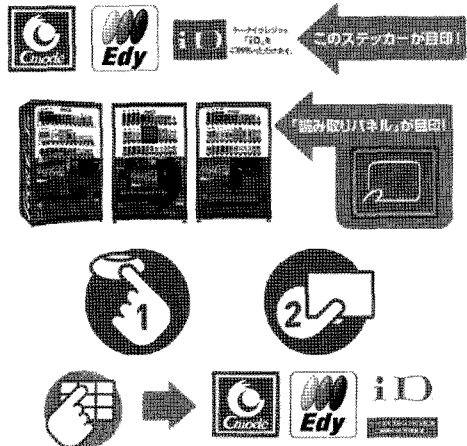
재해 대응형 자동판매기의 기능

대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동판매기내의 청량음료를 관공서 등 원격지로부터의 PC 조작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람이 대부분 모이는 장소, 재해시 피난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전광 게시판 기능도 탑재해 긴급할 때 「재해 정보」를 리얼타임에 표시한다. 평상시에는 뉴스나 날씨 등 지역사람들에게의 지역 정보나 속보 뉴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Edy 전자화폐 대응

※ Cmode 머니(요금)란, 지갑 휴대폰(i어플리 :Cmode☆코카·콜라)에의 선불(사전 입금)이다. 선불로 드링크를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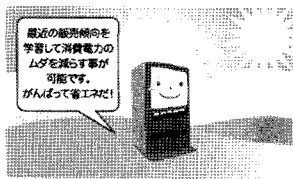
※ Cmode 머니(요금)를 이용하시려면 Cola-Cola Park에의 입회와 Cmode의 이용 등록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Cmode☆코카·콜라)의 다운로드가 필요하다

>>> 자동판매기의 환경

코카·콜라 시스템에서는 2010년까지 2004년에 비해 CO² 배출량을 약 19%줄이는 대처를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물론 자동판매기로부터의 CO² 배출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동판매기로 할 수 있는 환경 대책을 소개한다.

학습 에너지 절약 기능은?



그리고 판매 경향을 학습하는 것에 의해 소비 전력을 줄이는 기능이다.

판매 경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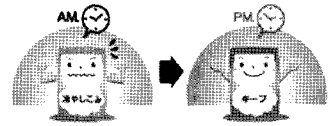
예를 들면 “이 자동판매기에서는 통상△△시경에는 00개 정도의 음료가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매 경향이다.

“이 자동판매기에서는 △△시경에는 00개 팔리지 말아라”라고 생각한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 전체를 항상 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소만을 차게 한다.

자동판매기에 내장된 컴퓨터가 많이 팔리는 시간과 별로 팔리지 않는 시간을 기억한다.

피크 컷트는 무엇일까요?

7월부터 9월 여름철은 냉방 수요가 급속히 증대한다. 특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에는 많은 전력이 사용되고 있어 이때를 피크 시간대라고 한다.



이 시간대에 있어서의 전력 사용을 억제하

기 위해 오전 중에 자동판매기를 차게 한다. 피크 시간대에 냉각 운전을 스톱 하는 일로 피크 시간대의 전력 억제에 협력하는 기능이다.

논후론화?

이는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차게 하기 위해 냉매(냉장고의 냉각이나 에어컨의 냉방에 필요한 가스)를 대체 플론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왜 대체 플론을 그만 사용하는가?



이전 자동판매기의 냉매로는 ‘프레온’이 사용되었지만, 이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오존층에게 주는 영향의 적은 것에 바꾸었다. 이를 ‘대체 플론’으로 불렀다. 그후 오존층 파괴 방지, 또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 ‘대체 플론’을 사용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작은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이산화탄소(CO²)입니다. 코카콜라는 2020년까지 모든 자동판매기를 논후론화한다.